

시모노세키 나베초 우체국 청사

이 건물은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현역 우체국 청사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르타르 벽돌로 만들어진 이 건물은 1900년에 아카마가세키 우편전보국으로 지어졌습니다. 설계한 이는 건축가인 미쓰하시 시로(1867~1915)이며,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인 좌우 대칭의 디귤(디)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아치형이며 상부에는 아치의 페디먼트가 있고 입구 좌우에는 부주(付柱)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등록 유형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병설된 카페에서는 벽돌로 만들어진 실내나 개방적인 안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인 국영 우편 사업의 역사는 1600년대 초반에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 편지와 상품은 ‘히카쿠(飛脚)’라는 운반책의 네트워크를 통해 배달되었습니다. 일본의 우편은 1871년, 도쿄와 오사카 간에 관영 우편 사업이 시작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체국이 지어졌을 당시, 근대적인 우편 사업은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었고, 그 대부분은 영국의 우편 제도를 모델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신(전보)이 중요한 통신 수단이었으며 건물 2층은 전신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체국 앞에 있는 빨간 우체통은 1901년에 도입된 당시의 우체통을 조금 현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디자인은 발명가인 다와라야 다카시치(1854~1912)가 고안했으며,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